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관한 연구

김남석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f First-time Fathers on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NamSuk Kim
Dept. of Nursing, ChejuHa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함이다. 첫 신생아의 아버지 136명을 대상으로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 통계, 상관관계, t-test, Scheffè test and one-way ANOVA로 연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서 각각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고,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생아 양육을 하는 데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양육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들에게 맞는 양육 여건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신생아 아버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신생아, 아버지, 양육 지식, 양육 자신감, 교육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arenting knowledge and confidence toward a first-time father of a newborn. The participants were 136 men in 2015.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esign was used.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t-test, Scheffè test and one-way ANOVA, using the SPSS statistics 20.0 for windows program. The parenting knowledge and confidenc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by education respectively, and they had meaningful correlation. The father role in newborn parenting should be emphasized. So, parenting is necessary on their participation. It is urgently needed establishing a social climate and culture for child rearing conditions and inducing fathers to actively participate.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newborn's father.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first-time fath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Key Words : Newborn, Father,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Confidence, education

Received 29 June 2016, Revised 28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NamSuk Kim(ChejuHalla University)
Email: kns2015@ch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나라 양육의 개념은 자녀의 출산으로 시작되어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시간, 공간, 대상에 따라 변하며,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여성은 어려서부터 아동을 보살피는 기회가 남성보다는 더 많이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양육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임신기부터는 자녀와의 친밀감을 생성하며, 모유 수유 등 자녀와의 애착 형성이 되어 어머니 역할을 수월하게 체득하고 수행하게 된다. 이해 반해, 남성들은 첫 신생아가 태어난 시점부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2], 아버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3]. 더욱이 현대 사회의 아버지는 긴 노동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4]으로 우리나라의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5].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생아 돌봄 교육의 부재로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여 아버지로서 할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6]. 이와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평등한 가족 구성원의 평등한 성 역할 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녀 양육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성차별적 역할 분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7].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아기의 출생 후 아버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장려하고 있어 기존의 가족 내 아버지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8]. 오늘날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경제 활동참여로 인해 결혼 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9]. 이에 따라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할은 가족의 경제적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에서 아버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아버지 자녀 양육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다[10].

간호학에서의 신생아와 관련하여 연구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 또는 모성 적용에 편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생아, 영아 양육을 위한 교육, 기술 등으로 산욕 초기 초산모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11], 산욕 초기 어머니 될과 돌봄 자신감[12], 어머니의 양육 의미[13], 수유 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14] 등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뤄졌고, 국외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첫 아기 아버지의 양육 교육연구[15], 첫 아기 아버지의 블로그를 통한 분석연구[16], 아기 출생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경험에 관한 연구[17]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버지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연구[18,19,20]는 미비한 실정이다.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신생아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므로 아버지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21]. 이에 본 연구는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 신생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을 조사하고 이들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첫 신생아의 아버지가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신생아 양육 자신감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신생아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한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 시의 산후조리원과 S 시의 위치한 병원에서 분만 후 첫 신생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첫 신생아의 아버지인 자
- 2) 신생아 양육 교육을 받지 않은 아버지인 자
- 3) 정상 분만의 2.5kg 또는 4.0kg 미만인 아기의 아버지인 자
- 4) 37주 이후 42주 미만인 정상 분만의 만삭아 아버지인 자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였다. 자료 수집 절차는 해당 기관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 조사하였다.

산출 근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30, 검정력 .8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28명을 근거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총 140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140부를 회수하였고, 불완전한 응답을 한 4부를 제외한 총 136부를 분석 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신생아 양육 지식

아버지의 신생아 양육 지식 측정 도구는 Seo[6]가 개발한 초산모 대상의 돌보기를 An[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연구 도구사용 허락을 받아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당 올바르게 응답한 문항은 1점, 틀린 응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6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18]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81$ 이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78$ 이었다.

2.4.2 신생아 양육 자신감

아버지의 신생아 양육 자신감 측정 도구는 Lim과 Yoo[19]가 개발한 양육 지식 신생아 양육 자신감을 An[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연구 도구사용을 허락을 받아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총 16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며 “매우 자신 있다.” 5점부터 “매우 자신 없다.” 1점까지이다.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An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94$ 이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93$ 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방법 SPSS 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로 처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양육 지식, 양육 자신감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와 Scheffé 사후검증을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H 대학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사(IRB No. HR-006-03) 승인 후, 연구 대상자에게 서면 혹은 구두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가 설문지 작성 도중 연구 참여에 대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연구자만 수거된 설문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령은 31~35세가 58명(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2.69±4.54 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12명(8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상태는 “중” 100명(73.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 기간은 12~36개월이 64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27.07±23.80개월이었다. 가족 유형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111명(81.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계획된 임신 여부는 “그렇다.” 94명(69.1%)으로 가장 많았고, 분만 형태는 질식분만이 103명(75.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신생아의 성별은 남아아이가 72명(52.9%), 여자

아이가 64명(47.1%)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생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남편 혹은 아내”라고 42명(30.9%)이 응답하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등하게 돌봐야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4명(69.1%)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줄 분은 친정 부모님 66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n)	Percentage (%)	M±(SD)
Age(year)	≤30	44	32.4	32.69±(4.54)
	31-35세	58	42.6	
	≥36	34	25.0	
Education	High school	24	17.6	
	University	112	82.4	
Economical condition	Good	11	8.1	27.07±23.80
	Common	100	73.5	
	Bad	25	18.4	
Length of marriage (month)	<12	43	31.6	
	12-36	64	47.1	
	>36	29	21.3	
Family type	Only couple	111	81.6	
	With parents	25	18.4	
Planned pregnancy	Yes	94	69.1	
	No	42	30.9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103	75.7	
	C-Section	33	24.3	
Baby's gender	Male	72	52.9	
	Female	64	47.1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of new borns?	wife or husband	42	30.9	
	equalization	94	69.1	
Helper for newborn care	postpartum caretaker	31	22.8	
	parents of wife	66	48.5	
	parents of husband	19	14.0	
	etc.	14	10.3	

3.2 대상자의 신생아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

신생아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양육 지식 정도는 0~16점 범위에서 평균 8.76점(100점 환산: 54.75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아기를 안을 때는 등과 머리를 받쳐줘야 한다.”(91.2%), “트림을 시킬 때는 등을 세게 두드려야 한다.”(86.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아기의 황달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지속된다.” (14.0%), “모유(우유) 먹이는 시간 간격은 정한 대로 엄격히 지키는 것이 좋다.”(27.8%) 문항 순이었다.

대상자의 양육 자신감 정도는 16~80점 범위에서 평균 52.08점(100점 환산: 65.1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아기가 깨어 있을 때 아기에게 눈을 마주치고 아기에게 말을 걸 수 있다.”(3.99±.89), “아기를 혼자 안아 줄 수 있다.” 순이었다(3.84±.90).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아기의 제대(배꼽)의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2.42±.93), “아기 제대(배꼽) 간호를 할 수 있다” 순이었다(2.63±.96).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은 <Table 3>과 같았다. 양육 지식은 학력 수준 ($t=-3.22, p=.002$)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 기간($F=3.932, p=.022$)이 길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 자신감에는 학력 수준($t=-3.29, p=.001$)과 경제적 수준($F=6.652, p=.002$), 계획된 임신($t=2.33, p=.02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한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 자신감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r=.505, p=.000$)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Knowledge and Confidence in Father of Parenting newborn. (N=136)

Variables	Items	M±SD	Actual Range	Possible Range	Cronbach's alpha
Parenting Knowledge	16	8.76±2.98	1-15	0-16	.78
Parenting Confidence	16	52.08±11.10	18-80	16-80	.93

4. 논의

본 연구는 첫 신생아의 아버지에 대한 신생아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후 초기 첫 신생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였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존의 독신의 삶을 떠나 아이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직장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를 의미하게 되며, 부모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변화는 아이가 성장과 발달, 정서적 건강과 인지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8].

<Table 3> Knowledge and 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ther of Parenting Newborn (N=1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Knowledge			Self efficacy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ear)	≤30	44	32.4	7.98	2.84	2.538	51.68	12.35	
	31-35	58	42.6	8.98	3.08	(0.83)	52.48	10.21	0.069
	≥36	34	25.0	9.41	2.87		51.91	11.19	(.933)
Education	High school	24	17.6	7.04	2.84	-3.22** (.002)	45.54	10.05	-3.29** (.001)
	University	112	82.4	9.13	2.90		53.48	10.85	
Economics	Good ^a	11	8.1	10.82	2.75	2.928 (.057)	62.45	10.59	6.652** (.002) a>b,c
	Common ^b	100	73.5	8.61	3.02		51.84	11.02	
	Bad ^c	25	18.4	8.48	2.69		48.48	9.10	
family type	Only couple	111	81.6	8.69	3.02	-0.58 (.561)	52.18	11.63	0.22 (.827)
	With parents	25	18.4	9.08	2.87		51.64	8.57	
Length of marriage (month)	<12 ^a	43	31.6	7.93	3.18	3.932* (.022) c>a	50.26	11.78	1.759 (.176)
	12-36 ^b	64	47.1	8.81	2.92		51.89	11.41	
	>36 ^c	29	21.3	9.90	2.50		55.21	8.82	
Planned pregnancy	Yes	94	69.1	8.99	2.88	1.32 (.191)	53.54	11.37	2.33* (.021)
	No	42	30.9	8.26	3.19		48.81	9.86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103	75.7	8.54	2.93	-1.53 (.128)	52.09	11.76	0.01 (.990)
	C-Section	33	24.3	9.45	3.11		52.06	8.91	
Baby's gender	Male	72	52.9	9.07	2.90	1.26 (.208)	51.64	10.96	-0.49 (.624)
	Female	64	47.1	8.42	3.06		52.58	11.33	
Helper for newborn care	postpartum caretaker	31	22.8	9.13	2.79	0.391 (.677)	52.52	9.87	0.088 (.916)
	parents of wife	66	48.5	8.62	2.97		52.12	11.54	
	parents of husband	19	14.0	8.42	3.95		51.16	12.15	
Total		136		8.76	2.99		52.08	11.10	

*p<.05, ** p<.01,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Knowledge and Confidence (N=136)

Variables	Knowledge
	r(p)
Knowledge	
Confidence	.505***(.000)

***(p<.001)

본 연구의 대상자가 첫 아기를 갖는 평균연령 32.69±(4.54)세로 2000년대에는 29.28세, 2010년도 31.84세, 2015년 남성 32.57세로[20], 신생아를 첫 출산 하는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개개인에게 정보와 지지를 통해서 출생한 아기를 돌보는 것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17]. 이는 아버지의 신생아 양육에 있어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은 8.76점(100점 환산: 54.75점)으로 2004년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0], 아버지의 양육 지식 점수와 비슷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지식 점수 17.53점(100점 환산: 70.1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이 낮은 이유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과 남성의 부권 중시, 그리고 현재의 직업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아버지가 양육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제도이다[23]. 더욱이 한국 사회의 남성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특히 직장 내 몰입을 강요하는 문화 업무 차원의 회식 및 음주 문화[24,25] 등을 비취볼 때 양육을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성이 자녀 양육에 신생아 때부터 부모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우선 근무시간과 일에 대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의 의식 변화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4].

또한, 아버지의 양육 지식 습득의 기회 부족으로 양육 지식 정도가 낮으므로 향후 신생아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양육에 대한 교육의 접근 기회를 늘려야 하고 아버지가 양육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

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기간 길어질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Seo [6]의 연구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지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또한,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과 아기를 돌볼 경험 유무에 따라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11,19,20]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첫 신생아 출산을 계획하는 남성에게 대상으로 신생아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생아 출산 전 양육을 준비한 부모는 새로운 삶의 공감을 형성하고 출산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양상을 보였다[26]. 따라서 가족계획에서부터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여 아버지로서 준비태세를 거치도록 하고, 이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 성격으로 자녀 양육의 발달과업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27]

신생아 양육의 자신감의 점수는 52.08(100점 환산: 65.1점)이며, “학력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계획된 임신”에서 양육 자신감이 높았다. Kang[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전문직 군에서 양육 참여도 및 아버지의 양육 수행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돌보는 경험의 유무와 양육 참여시간 정도 계획된 임신이 양육 자신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으며[19,20], Hong[28] 연구에서는 성별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중 돌봄 준비를 한 경우가 자신감이 높다고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양육 자신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아기의 제대(배꼽)의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2.42±.93), “아기 제대(배꼽) 간호를 할 수 있다.”(2.63±.93) 순이었다. Kim과 Jeong[11] 은 비디오를 통해 신생아 양육 행위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를 돌볼 때 자주 접할 수 있는 행위 등은 간단한 교육 매체를 이용하여도 자신감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아기 제대 간호와 같은 좀 더 전문적인 돌봄은 시범이나 비디오 시청 등 적절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자주 접하는 아기의 증상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며, 양육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에 대한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면 양육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 자신감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505, p=.000$)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양육 지식과 자신감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1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비디오 시청, 시범 및 실습을 제공하는 것이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기의 발달과 애착에 도움이 되며 이는 아버지로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였다[29]. 또한 가족문화를 결합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수반된다면 올바른 자녀관이 형성된다고 하였다[30].

본 연구는 첫 신생아 아버지가 신생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을 파악하였으므로 향후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하여 맞춤형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첫 신생아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 지식, 양육 자신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첫 신생아를 출산한 아버지의 양육 지식은 8.76점(100점 환산: 54.75점)으로 중간 수준의 양육 지식을 나타내었다. 양육 자신감은 52.08(100점 환산: 65.1점)로 중간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의 결과를 나타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 유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로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양육을 하는 데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양육 참여가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양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아버지의 신생아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표출하였고, 표본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수를 좀 더 크게 하여 아버지 대상의 신생아 양육과 관련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첫 신생아 아버지의 양육 지식과 양육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아버지가 신생아를 양육하는 행위에 대한 관찰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Y. Lee, "A concept analysis of the rear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4, No. 1, pp. 76-85, 1998.
- [2] Y. J. Shin,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 literature review." *Dongduk Journal of Life Science Studies*, Vol. 13, pp. 45-55, 2008.
- [3] Y. D. Kim & D. K. Lee, "The parenting characteristics of in experienced father and the process of becoming father."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2, No. 1, pp. 353-380, 2011.
- [4] H. Y. Kim, J. M. Hwang, B. Y. Sun, D. K. Kim, "Research on men's paternal experiences and their work-father role conflic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pp. 1-344, 2008.
- [5] Y. H. Lee, "A comparative study on time of child caring between father and mother."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6, No. 3, pp. 471-495, 2012.
- [6] Y. M. Seo,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n primiparas knowledge, confidence and accuracy of behavior in newborn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8, No. 4, pp. 1060-1074, 1998.
-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Korean family survey (second)." 2011.
- [8] Å. Premberg, A. L. Hellström, M. Berg, "Experiences of the first year as father."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 Vol. 22, No. 1, pp. 56-63, 2008.
DOI:<http://dx.doi.org/10.1111/j.1471-6712.2007.00584.x>.
- [9] H. S. Jeon, "The effects of familism and sense of

- intimacy to older parents on filial responsibility of Korean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501-506,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5.501>
- [10] H. J. Kwon, “The meaning of father’s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the educational program for fathe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 education*, Vol. 9, No. 5, pp. 461-488, 2013.
- [11] H. K. Kim, I. S. Jeong,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newborn care confidence and behavioral accuracy of primiparas in a postpartum care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7, No. 1, pp. 125-134, 2007.
- [12] Y. H. Kim, J. H. Lee, S. H. Park, M. R. Bang, S. Y. Park, J. A. Lee, J. Y. Jeong, O. S. An, “Motherhood and role confidence in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6, No. 2, pp. 291-304, 2000.
- [13] S. Y. Lee, “An ethnography of child-rearing experiences of Korean mothers living on Jeju Islan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4, pp. 518-535, 2001.
- [14] S. Y. Lee, I. S. Kwon, “A comparative stud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2, No. 3, pp. 231-239, 2006.
- [15] J. M. StGeorge, R. J. Fletcher, “Fathers Online: Learning About Fatherhood Through the Internet.” *The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Vol. 20, No. 3, pp. 154-162, 2011.
DOI:<http://dx.doi.org/10.1891/1058-1243.20.3.154>
- [16] L. Åsenhed, J. Kilstam, S. Alehagen, C. Baggens, “Becoming a father i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 an analysis of first-time fathers blog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3, No. 9, pp.1309-1317, 2014.
DOI:<http://dx.doi.org/10.1111/jocn.12355>
- [17] E. Schytt, M. Rergström, “First-time father’s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of childbirth in relation to age.” *Midwifery*, Vol. 30, No. 1, pp. 82-88, 2014.
DOI:<http://dx.doi.org/10.1016/j.midw.2013.01.015>
- [18] H. S. An, K. S. Bang,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for first-time fathers on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at postpartum one mon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4, No. 4, pp. 428-436, 2014.
DOI:<http://dx.doi.org/10.4040/jkan.2014.44.4.428>
- [19] J. A. Lim & E. K. Yoo,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about postpartal woman and newborn car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8, No. 3, pp. 345-357, 2002.
- [20] H. J. Lee, S. A. Lee, M. H. Kim, Y. H. Kim, N. H. Park, “A study of parent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0, No. 3, pp. 262-271, 2004.
- [21] I. S. Kwon, “Trend and perspectives of studies on paternal parenting in pediatric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69-75, 2013.
DOI:<http://dx.doi.org/10.4094/chnr.2013.19.2.69>
- [22] Statistics Korea, Married for the couple’s age gap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8&conn_path=I2, 2015.
- [23] H. J. Cho, “In Korea, women and men.” 256-260, Moonji Publishing Co.,Ltd. 1999.
DOI:<http://dx.doi.org/10.4094/chnr.2013.19.2.69>
- [24] S. M An, K. Y. Lee, S. M, Lee,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7, No. 2, pp. 93-119, 2013.
- [25] E. K. Lee,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375-382, 2015.
DOI:<http://dx.doi.org/10.14400/JDC.2015.13.1.375>
- [26] S. M. Ryu, H. J. Lee, “The meaning of parental experience for parents-Focusing on pre-pregnancy,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The Korea Society for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1, pp. 51-77, 2015

- [27] S. Yang, "Men's fathering experiences focused on tensions and conflict of multiple rol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2, pp. 375-383, 2013.
- [28] K. J. Hong, M. S. Hwang, H. W. Kim, "Primipara's maternal Identity &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4, No. 1, pp. 65-77, 1998.
- [29] L. McKellar, J. Pincombe, A. Henderson, "Enhancing fathers' educational experiences during the early postnatal period." *The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Vol. 17, No. 4, pp. 12-20, 2008.
DOI:<http://dx.doi.org/10.1624/105812408x364134>
- [30] Y. H. Joo, E. S. Jung, M. S. Shin,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9, pp. 267-27, 2013.

김 남 석(Kim, Nam Suk)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강의전담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취약계층, 남성
- E-Mail : kns2015@chu.ac.kr